

<2013년 11월 17일 주일말씀> 자세한 설명을 받은 자가 설교해 줘야 모두 이해한다.

찾는 것이 보화다 제 방향에서 봐야 보인다

본 문 잠언 1장 7절

마태복음 5장 48절

* 설명이 어려워서, 선생이 한 사람에게 사전에 직접 설명해 주고,
그리고 긴 편지로 또 설명해 주었다.
(생방송 여부는 추후 결정하니, 설교자들은 꼭 설교 준비를 미리 해 놓을 것!)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 듣게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오늘은 <성자바위>에 있는 여러 가지의 형상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 <성자바위 형상>만 말해 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사의 다 른 것들도 그러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끝>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찾는 것이 보화다.’ 입니다.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지만 말고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보화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 방향에서 봐야 보인다.’ 입니다.

바위의 형상을 보려면 ‘딱 그 방향’ 에서 봐야 정확히 보입니다.

오늘 말씀할 <성자바위>에는 여러 가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제 방향’ 에서 봐야 정확히 그 형상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만사의 다른 것들도 제 방향, 제 위치에서 보고 행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6000년 종교 역사 이후 최고의 인봉의 말씀은 <성자 본체와 분체> 입니다. 이 말씀은 신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펴는지 확실하게 쪼개어 알게 해 줍니다. 이 말씀의 인봉이 풀리면, 성자도 빛이 나고 그 육으로 쓰이는 자도 빛이 납니다. 고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자바위>는 ‘성자 본체’ 에 대해 밝힌 후, 성자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섭리사에 기념으로 세워 놓게 하셨습니다.

먼저 <성자바위>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작>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월명동 뒷동산인 <기도 동산>에다 15m 되는 예수님 동상을 대리석으로 조각하여 세우려 했습니다.

먼저 운동장 옆에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 왔는데, 해 놓고 보니 작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더 크게 만들어서 세우자.’ 하고 선생이 구상해 봤습니다. <끝>

그런 후에 전국에서 15m 조각이 나오는 대리석을 찾다가 못 했습니다. 400톤이 돼야 15m 동상이 나오는데, 그런 대리석을 구하려면 15억

정도가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그 후에 다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대리석으로 작게 조각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조각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어차피 상징이고 본 형상은 못 만드니까 큰 대리석을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도록 공같이 깎아서 운동장 끝에 3개를 놓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일체이지만 이같이 각각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며 모두 보게 하면서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초안) <끝>

선생은 <삼위일체>의 그 실체를 보고 깨달았기에 지난 35년 동안 삼위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를 상징적으로 보이게도 나타낼까?’ 하며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이 되어 성약역사가 독립의 해를 맞은 후 감동되어 성자에게 월명동에 형상이 있는 큰 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두 보고 공감하고 좋아하며 기념할 돌을 달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형상 바위나, 성자를 상징하는 돌이나, 삼위일체를 상징한 돌 작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그러다가 <성자 사랑의 집>을 공사하면서, 그곳에서 파낸 흙과 돌을 실어다 매립하는 곳에 갔을 때 논 위에 솟은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동도 되고, 그대로 묻어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그 돌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으로 가져온 돌이 바로 <성자바위>입니다. (사진)

처음에 그 돌을 실어 올 때 찍은 사진을 보니, 눈에 잘 띄는 형상이 지금 운동장 반대편 쪽으로 가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가장 또렷한 형상이 바로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앞으로 놓아라.” 하려 했는데, 순간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방향을 바꿔서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현재 <성자바위 정면>은 마치 인(人)독수리같이 코가 뾰족하여 ‘독수리를 닮은 사람 형상’ 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자바위 뒷면>은 사람의 형상인데 눈과 모든 모습이 근엄하고, 두렵고, 권세 있는 ‘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자 상징’ 이라 했습니다. (사진)

현재 <성자바위>는 살짝 대각선으로 놓아서 양면이 다 보이게 했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인(人)독수리 형상> 쪽이 정면처럼 더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생이 14년의 조건을 세우고 섭리역사가 무덤 기간을 벗어나 석방되고 부활되고 독립된 기념으로 성자의 모습을 상징한 <성자바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바위를 선물로 받는 것을 성자께서 미리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림) <끝>

그 후에 <성자 사랑의 집>을 완공했고, 선생은 올해 6월부터 <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식 기도>의 목적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두에게 필수인 ‘휴거’와 ‘각자 맡은 일’을 실수 없이 잘하도록 조건을 세웠습니다. 실수하면, 큰 손해입니다. 손해가 가도 자기 차원에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모릅니다.

모두 저마다 휴거되라고 몸부림쳐 성자께 말씀을 받아 <휴거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 조건을 못 세워 줘서 여러분이 휴거가 안 된다면, 나에게 그것같이 큰 죄가 없을 것이며, 그것같이 할 일을 못 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생명을 구원하러 온 자로서 구원자가 책임을 못 해서, 시대 구원을 이루어 휴거될 자들이 휴거되지 못했다.”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원히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 최고 힘 있는 데까지, 성자가 보실 때 최고 기간까지 구원받고 휴거될 자들을 위해 <절식 기도>를 하기로 하고, 올해 6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1월까지 하면 6개월이 되어 창조 수인 ‘6’수로 한 기간이 끝납니다. 11월까지 <절식 기도>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 모두 이때 기도하고, 이때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고치고, 이때 기회를 잡아 행하고, 이때 휴거도 돼야 합니다.

선생의 일생 동안 이같은 또 해 주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최고로 조건을 세워 줍니다. 선생이 조건을 못 세워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도울 것을 못 도울까 하여 절식으로 조건을 세우면서 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식 기도 기간>에 성자와 기도로 대화하며,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의 것들을 놓고 성자와 의논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모두 기록하여 후대에 남깁니다.

‘조건’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이 참으로 큼니다.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낸 자에게도 잠긴 자물통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세우면, 거대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듯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절식 기도 기간> 때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선생이 뇌를 다스리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고로 말씀의 차원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 중에서 필요 없는 일을 깨닫고

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월명동에서 해야 될 일들은 상상도 못 하는 지혜의 차원에 들어가 뇌가 풀려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 동산>에 예수님 동상을 세우려 했던 것도 성자에게 설명을 듣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려면 이 시대의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절식 기도 기간> 중에 성자가 ‘혼체의 문’을 열어 주어 성자와 분체와 혼으로 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자는 스마트폰보다 수백억만 배 강도 높고 이상적인 ‘뇌 스마트폰, 혼 스마트폰’과 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으로 통하면, 형상이 보입니다. 혼으로 통해 본 사람들은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전환>

선생은 <절식 기도>를 하면서 성자에게 간구했습니다. “월명동에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돌을 주세요. 보면, ‘정말 신비하다! 정말 신기하다! 으앗!’ 하는 돌을 주세요.” 하며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진국 상희에게 <성자바위>의 앞뒷면, 좌우 측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어서 보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꺼내서 보면, 좌우 측면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사진을 봐도 별 다른 것이 없어요.” 했습니다.

성자는 “그래도 다시 찍어서 보내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이에 사진국 박상희 목사에게 편지하여 <성자바위>의 앞뒷면과 좌우 측면을 찍어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성자께서 사진을 찍는 상희 목사의 육을 쓰고 <성자바위> 사진을 다시 찍어 왔습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성자바위의 앞쪽 측면>에 ‘**근엄하고 인자한 얼굴 형상**’이 선연히 보였습니다. 턱, 입, 눈 형상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근엄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얼굴이다!**” 했습니다. (사진)

내가 신기해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성자는 <성자바위>의 다른 측면도 보게 하셨습니다.

<성자바위의 뒤쪽 측면>을 보니 ‘**여자의 얼굴 형상**’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 형상은 여자이니, 성령님의 얼굴이다!” 했습니다. (사진)

그리고 <그 여자 형상, 곧 성령님의 얼굴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치타 얼굴**’이 훤히 보였습니다. 치타의 눈과, 눈 안쪽 골에서부터 코 옆으로 길게 뻗은 검은 줄무늬가 치타의 모습처럼 정확히 보였습니다. 또 입과 코와 머리가 다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 치타 형상이 보인다. 정말 신비하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사진)

그리고 <여자 얼굴 위쪽>을 보니, ‘**무기를 실은 팬텀기의 모습**’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사진)

성자와 대화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해요!!” 하고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끝>

월명동에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돌을 달라고 하니, 성자는 이미 있는 <성자바위> 형상에서 차원을 높여서 형상을 더 찾게 해 주셨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찾는 것이 보화다.” 하셨습니다.

“찾는 그 자체가 보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했는데, 찾

게 하시어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찾는 자의 보물이다.” 하셨습니다.

(* <성자바위>에 또 다른 형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영상6>

성자께서 “<성자바위의 뒷면>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발가락 일곱 개가 달린 큰 발’ 이 보였습니다. (사진)

그런데 발가락이 마치 조각이라도 난 듯 짧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아쉬운 형상이네요.” 하니, 성자는 “이 발은 거룩한 발을 상징한다. 나 성자가 지구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려 너무도 쫓아다녀서 발가락이 다 닳아 없어진 것을 상징한다. 또 발바닥 색을 보라. 붉지? 피 발바닥이 되었다. 돌 색이 바래어 별절게 되어 피 색이 되지 않았냐.” 하며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뜨끔하고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즉시 성자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발가락이 ‘7개’ 인 것은 ‘7은 완전수’ 이니, 성자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끝>

이렇게 <성자바위>에는 총 일곱 개의 형상이 보입니다. 성자는 이 형상들을 찾게 하시고, 형상의 의미를 각각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듣기 바랍니다.

<중요>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첫째, 현재 <성자바위 뒷면>은 ‘성자 형상’ 이다. (표시된 사진)

- 이는 하늘의 형상으로서 ‘성자 본체’를 의미한다.

둘째, 그 밑에 ‘거룩한 발의 형상’이 있다. (표시된 사진)

-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뜻이며, 또한 ‘성자의 거룩한 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자가 땅에 채림했다.’는 뜻이다.

셋째, 현재 <성자바위 정면>은 ‘인(人)독수리 형상’이다.

(표시된 사진)

- 내가 동방에 독수리를 보낸다고 했으니, 나 성자가 육으로 쓰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인(人)독수리 형상’은 땅의 형상으로서 ‘성자 본체’를 의미한다.

넷째, <하늘과 땅 형상, 곧 본체와 분체의 형상의 측면>을 보면, ‘근엄하고 인자한 얼굴 형상’이 있다. (표시된 사진)

-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한 형상’으로 하자. 제 방향에서 보면 정확하게 보이니, 누구나 느끼고 확실히 안다. 그 모습을 보아라. 턱, 눈, 입술, 코, 머리를 보아라. 충분히 하나님을 상징한 형상이지 않느냐.

다섯째, <하나님 형상의 맞은편>을 보아라. 여인 형상으로서 ‘성령님을 상징한 형상’이 있다. (표시된 사진)

- 하나님의 상대체는 성령님이다. 고로 하나님 형상의 맞은편에 성령의 형상이 있다. 턱, 눈, 입술, 코, 머리, 목선을 보아라. 여자의 선이 아니냐. 제 방향에서 정확히 보면, 말을 안 해도 돌이 생긴 형상대로 보이지 않느냐.

여섯째, <성령님 형상의 측면>을 보아라. 땅에서 최고로 빠른 동물의 왕 ‘치타 얼굴’ 이 있다. (표시된 사진)

- 네 몸이 묶여 있으니, 너와 내가 대신 보내어 네 몸이 되어 행하는 자, 그리고 하늘 성령의 상징체로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조은이’를 상징하는 동물이 아니냐.

조은 목사가 나와 너의 말대로 빠르게 행한다고 하여 그 별호를 ‘치타’ 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즘 붙여 준 별호가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나 성자가 너를 통해 ‘조은이’를 상징적으로 ‘치타’라 했다. 그리고 그의 상징으로 ‘치타 형상석’도 주었다.

고로 <성령님 형상의 측면>에 너의 몸이 되어 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조은 목사를 상징하여 ‘치타 얼굴’을 찾게 했다.

그리고 ‘치타’는 빠른 구름이 되어 행하는 하늘 신부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섭리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너희는 치타처럼 빠른 자들이 되어라.

일곱째, <성령님 형상의 맨 위쪽>에 ‘무기를 실은 팬텀기’가 있다.

(표시된 사진)

- 팬텀기는 땅에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로 빠르고 위력 있는 전투기다. 이는 ‘하늘과 땅의 무기인 사명자’를 뜻하고, ‘섭리사의 무기인 시대 말씀’을 뜻한다. <끝>

*** 대표 설교자가 추가로 설명할 부분**

- 성자바위 정면과 뒷면 - 분체와 성자 본체 상징
- 성자바위 정면에서 좌측면과 그 상대편에 있는 우측면 - 하나님과 그 상대체인 성령님
- 성자바위 성령님 형상의 바로 옆 측면 - 성령님과 성령님의 상징체를 상징하는 치타
- 성자바위 성령님 형상과 맨 위, 치타 형상 위 - 땅에는 빠른 치타, 하늘에는 빠른 팬텀기

성자는 약 3시간 동안 <성자바위>에 있는 형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성자에게 “하나의 바위에 한 면의 형상이 있기도 어려운데, 앞, 뒤, 좌, 우 네 면에 다 형상이 있으니 정말 신기합니다! 그것도 남자 어른 형상이 3개, 여자 어른 형상이 1개나 있으니 더 신기해요! 조각하여 만들려고 해도 그런 구상은 어렵습니다.” 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그리고 궁금하여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돌을 이렇게 구상하고 만들어서 찾게 한 것이요?”

성자는 “다 알려 주면, 나의 신비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에서 다 벗고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수영복만은 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는 은밀하게 숨겨 더욱 신비하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끝>

선생은 다시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성자바위>의 이 형상들은 아무 방향에서나 보이지 않습니다. 꼭 그 방향에서만 보입니다. 그러니 형상석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분체야. 미인 얼굴도 정면에 서서 그 방향에서 봐야 미인으로 보이지,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반쪽만 보이고, 더 방향을 돌리면 머리만 보여 귀신같이 보인다. 형상이 확실한 형상석도 방향을 틀면 제대로 안 보인다. 너도 내가 말씀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 완전한 말씀이라도 못 알아듣지 않느냐. 내 설명 이해했지? 그러니 이것은 각도석이 아니라 형상석이다.” 하셨습니다.

<성자바위> 옆에 있는 <‘큰바위얼굴’ 바위>는 형상이 딱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납작바위>는 사람 형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납작하기만 합니다.

작은 돌에서는 형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에서 형상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바위 안에 사람 형상이 4개나 있고, 또 다른 형상이 3개 더 있으니, 표적이며 기적입니다. 신비한 작품이며, 계획적인 신의 작품입니다. 아멘!

성자는 기도한 대로 주셨습니다. 2013년 돌 축제의 성자의 선물이며, 기쁨 거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찾는 것이 보화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새롭게 다른 것을 얻는 것도 보화이지만,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보화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그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찾는 자에게는 가장 큰 보화가 됩니다!

<전환>

제자들에게 <성자바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형상이 한 개만 보이게 찍고, 어떤 사람은 형상이 두 개 보이게 찍고, 어떤 사람은 형상이 세 개 보이게 찍습니다.

정확한 방향에서 보고 사진을 찍어야 형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한 방향에서만 찍으면, 하나의 형상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제 방향에서 봐야 보인다.’ 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중요> (* 중요한 말씀, 화면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영상9>

각각 제 방향에서 봐야 그 형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성자바위>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려면, 그 방향에서 봐야 ‘하나님 형상’ 이 제대로 보입니다. 성자 형상을 보려면, 그 방향에서 봐야 ‘성자 형상’ 이 제대로 보입니다. 땅의 사명자 인(人)독수리 형상을 보려면, 그 방향에서 봐야 ‘인독수리 형상’ 이 제대로 보입니다. ‘성령님 형상’ 도 ‘치타 얼굴 형상’ 도 제 위치와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제 위치와 제 방향에서 봐야만 ‘심정 일체, 말씀 일체’ 되어, 그때만 감동되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탄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 위치와 제 방향을 벗어나면 안 보이고, 감동도 안 되고, 감탄도 안 나오고, 사랑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말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고 확실하게 집중하여 설명을 잘 해야 듣는 자가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보게 됩니다. (초안)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서 성자가 말씀해 주신 것을 분체가 기록하여 전했습니다. <끝>

이것이 5개월 17일 동안 절식 기도를 하면서 차원을 높여 성자에게 받은 실력의 말씀입니다. 모두 조건을 세우면, 성자께서 이같이 엄청난 차원의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만일 <성자바위>에서 다른 형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평생 ‘하늘의 성자 형상, 땅의 인(人)독수리 형상’ 두 가지만 보고 끝났을 것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이는 것은 백지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백지장만큼 더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백지장만큼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에서 백지장만큼 조금 더 알고 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의 어마어마한 것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이어지는 말씀, 화면을 보면서 들겠습니다.) <영상10>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한 치 앞을 더 내다보는 자, 그 한 사람이 지구 세상 70억 명을 앞질러 간다.” 하셨습니다. (초안)

성자가 재림한 것도 차원 높여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영으로 땅의 합당한 자의 욕을 쓰고 온다.’ 하며, 그 방향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성자가 땅에 재림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는 지구 세계 최고의 발견입니다! 이를 발견한 자가 성자를 맞고, 먼저 땅의 주인이 됩니다. <끝>

제 위치와 제 방향에서 보는 자가 제대로 보고 존재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 악평자들과 불신자들은 다른 방향에서 보고 “그냥 바윗덩어리다. 속지 말아라.” 하듯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로 바로 보고, 바로 증거해 줘야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1>

성경말씀도 ‘방향’에 따라 ‘설명’에 따라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냐, 메시아냐, 성자냐, 성령님이냐, 하나님이나 알게 됩니다. (초안) <끝>

비논리로 다른 방향에서 보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게 되고, “성령님은 없다.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 것이다.”

하게 되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하게 됩니다.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데, 다른 방향에서 보니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명을 한다.” 하며 헛소리를 하는데, 역시 제 방향에서 안 보고 다른 방향에서 보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를 볼 때도 다른 방향에서 보니, 악평하는 것입니다. 섭리사에서 살아도 자기가 다른 방향에서 보니, 헛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위치,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2>

수십억, 수백억짜리 수석도 제 방향에서 안 보니, 가치 없이 여기고 “그냥 돌덩이네.” 하고 버립니다. 제 방향에서 본 사람이 주워 가서 팔아 큰돈을 벌게 됩니다. (초안)

이와 같이 <분체>도 제대로 봐야 ‘자기를 구할 자’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도 온전한 방향에서 봐야 ‘자신의 모순’도 깨닫고 ‘자신의 가치’도 깨닫고 제대로 삽니다. <끝>

<성자 재림>도 그 센터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잘 설명해야 듣는 자들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휴거>도 그 센터를 정확히 설명해야 듣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자>도 <분체>도 그 센터의 방향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 위치에서 제대로 보고 듣게 해 줘야 <성자바위>에서 일곱 개의 형상이 보이듯, 성자와 분체를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 배신자, 악평자들은 ‘시대 말씀의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서 벗어나서 보니 “그것이 아니다. 사명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제대로 외치고 전해 줘야 됩니다.

그 방향과 각도의 시대 말씀에다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면, 그 사명의 형상이 흐려집니다.

악한 자들은 계획적으로 나쁜 말을 만들어서 선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냥 두지 않고, 정녕코 정한 날에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자꾸 계획적으로 나쁜 말을 만들어서 전하니, 우리는 자꾸 제 방향과 제 위치에서 시대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3>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자바위>도 제 방향과 제 위치에서 봐야 그 형상이 정확히 보여 놀라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먼 길 온 보람을 느낀다. 이와 같이 <시대 말씀>도 정확한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서 들어야 ‘땅에 보낸 사명자’도 잘 보이고 제대로 깨닫는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멘!)

(초안) <끝>

각 교회 강사들과 섭리사의 강사들은 이 시대 말씀을 증거하며 강의할 때, 다른 것을 섞지 말고 그 방향과 각도에서만 말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그 방향과 각도의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제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설명도 제대로 못 해 주고, 강의도 제대로 못 해 주고는 “왜 못 깨달았어?” 하며 인상 씁니다.

선생은 한 줄 편지로도 깨우쳐 주는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7년, 10년 가르쳤어도 제대로 깨우쳐 주지 못합니다. 고로 그리 오래 말씀을 배웠어도 ‘분체’도 제대로 모릅니다.

이는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친 ‘강사 문제’이며, 또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차원이 낮으니 못 깨닫는 ‘개인 차원 문제’입니다. 모르면 절대 휴거되기는커녕 휴거되는 자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성자, 성령, 분체>에 대해 설명을 잘하는 자를 ‘섭리사 전문 강사’로 뽑아 ① 교역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강사로 쓰고, ② 신학교의 전문 강사로 쓰고, ③ 집회 교육 강사로 쓸 것입니다.

<전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자의 말씀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4>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생각이 높으면 하나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초안)

“생각이 낮으면 여러 가지가 보이며 ‘뭘 할까?’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생각이 조금 더 높아지면 두 가지 길이 보인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한다. 그러다 생각이 더 높아지면, 그중의 하나만 훨씬 낮게 보인다. 고로 생각이 높으면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쌤 친필 잠언이 나간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력이 낮으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시력이 높아지면 하나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각이 낮으면 두 가지로 보이고, 생각이 높으면 하나로 보인다.” (쌤 친필 잠언)

사람이 생각이 낮으면, 각종 종교와 우상 종교까지 다 비슷하게 마음에 들어와 다 좋다고 합니다. 고로 ‘선’과 ‘악’ 두 세계가 다 보이면

서 ‘천국길’ 과 ‘지옥길’ 중의 어떤 길로 가야 좋은지 모릅니다.

생각이 높으면, 천국길만 보이고 선만 보입니다. 고로 즉시 그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와 생각이 일체 돼야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로 보여 즉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섭리사에 와서 자기 생각의 차원이 높을 때는 시대 사명자를 제대로 보고 좋아하며 따릅니다. 그러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생각의 차원이 낮아지고 신령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여 헛갈립니다. 그러다가 세상길로 가 버리게 됩니다.

선생이 처음에 <성자바위> 사진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형상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였습니다. 두 개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높아지니, 그 형상이 하나로 보였습니다. 각 면마다 여자 모양, 혹은 남자 모양 하나로 보였습니다. 인(人)독수리 형상도, 성자 형상도, 팬텀기 형상도, 치타 얼굴 형상도 하나로 보였습니다. 생각이 높아지니 각각 하나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영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보이고, 자기가 듣는 대로 인식합니다. 고로 ‘여러가지’ 가 보이고 들립니다.

<영계의 문>에 들어갈 때는 마음과 정신이 일체 되고 생각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영계에 들어가서 보면, 영계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즉시 ‘하나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혼계에 가서 제 방

향과 제 위치에만 가도 ‘하나로’ 확실히 보입니다.

육계에서도 강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제 방향의 것’ 만 설명하면, 듣는 자가 성자도, 분체도, 성령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술’로 뱅뱅 돌리고 ‘다른 이야기’로 뱅뱅 돌리니 1년, 2년이 가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가기도 합니다.

강의할 때는 그 센터의 것을 전문으로 전해야 됩니다. 오징어탕이면 오징어만 넣고 요리하고, 매운탕이면 한 가지 물고기만 넣어서 요리하고, 계란탕이면 계란만 넣고 요리해야... 먹으면 바로 압니다. 이것저것 섞으면 모릅니다. 말씀도 이것저것 섞어서 그 센터의 것을 전문으로 전하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모릅니다.

섞지 말고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붙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5>

성자바위도 쪼개서 그 방향에서 봐야 보입니다. 안 쪼개고 위에서 보세요. 네모진 형상에 ‘돌나물’ 만 보입니다. 맞지요? <끝>

말씀도 쪼개서 전해야 불이 붙습니다. 쪼개지 않고 전하면 사탄이 개입해서 ‘시대 사명자’를 못 깨닫게 합니다.

강의도 쪼개서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의 것만 확실히 말해 줘야지,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할 때도 말씀의 근본을 정확히 알고 외쳐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에서 제대로 발음하고 제스처하며 외쳐야 됩니다.

부흥강사는 설교 때마다 선생의 코치를 받아 근본을 알고 더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은 자기 말이 아니라 근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원 설교에 설명을 더하면 자기 말을 섞는 것이 됩니다. 고로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준비하여 근본을 깨닫고 자기 말을 섞지 말고 그대로 전해 줘야 됩니다.

<전환>

이제 성자께서 3분 동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영상16>

<성자의 말씀>

누구나 **생각의 차원을 높인 만큼** ① 숨은 보화를 발견하고, ② 숨어 있는 차원 높은 진리도 깨닫고, ③ 나 성자와 내 분체를 차원 높게 가르쳐 제대로 알게 하여 사망에서 나오게 하고, ④ 시대를 따라 휴거도 이루어 게 된다.

오늘도 내 분체가 나 성자와 같이 외쳤다. 나 성자가 내 분체에게 보여 주고 깨닫게 하여 가르쳐 준 것을 너희 모두에게 전해 주었으니, 모두 명심하고 말씀대로 행하자! 그리하면 내 분체가 6개월 동안 절식 기도한 생각의 차원으로 너희도 차원 높여 변화된다.

‘자기 죄와 모순’도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그래야 자기 죄와 모순을 정확히 알고 회개하게 된다.

분체가 너희 죄와 모순을 지적하면,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여 서운병이 든다. 고로 자기가 제 방향에서 ‘자기 죄와 모순’을 정확히 보고 깨달아 자기가 고쳐야 된다.

‘자기 의와 가치’도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고, 더욱 의롭고 가치 있게 살게 된다.

‘병’도 제 방향에서 봐야 정확하게 발견하고 고친다. 자기 몸을 건강한 방향으로만 보다가는 곧 죽음의 병이 닥쳐오는데도 모른다.

‘신앙의 병’도 그러하고, ‘자기의 각종 문제’도 그러하고, ‘섭리의 문제’도 그러하다. 제 방향에서 봐야 미리 알고 해결한다.

‘나 성자와의 사랑 센터’도 제 방향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

‘휴거 센터’도 제 방향에서 제대로 보고 행해야 된다.

자기 주관, 자기 인식, 자기 방향은 죽는 길이다. 이 말씀을 통해 <방향의 은혜>를 받아 수백 가지를 깨닫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변화 충만, 교통 충만, 사랑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자 주니라.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자의 은혜와,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온전한 방향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가르쳐 주어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어 하나님의 역사에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